



2013 현대차 임단투-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임금은 올리고 노동 시간은 줄이자

2013년 임단투를 앞두고 현대차 사측이 “대내외 경쟁은 심화되는데 경쟁력 훼손하는 요구안은 산더미”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비난하고 있다. 정규직 임단협 요구는 “과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측은 임금피크제와 이중임금제 등 임금 체계 개악안까지 내놓으며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과도”하고, 설명 “불가능한” 것은 사측의 욕심이다. 현대차는 5월까지 이미 올해 판매 목표의 절반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사측이 공간에 쏟아 놓은 사내유보금만 무려 33조 원이다. 여기에는 정규직·비정규직·촉탁 계약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으로 밤샘노동은 폐지됐으나 “현대차 기술직(생산직)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2천5백 시간에 육박”한다고 한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천7백64시간보다 7백여 시간이 더 길다.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게다가 노동강도도 높아진 주말 특근을 거의 매주하게 생겼다.

투쟁의 불씨

이 때문에 앞서 13주 동안 주말특근 거부 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서는 “주말에 쉬니까 너무 편하다. 아예 이 참에 특근을 없애자. 대신 기본급을 올려야 임금을 벌충할 수 있다”는 정당한 얘기가 나왔다. 사측과 집행부의 부적절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몇 주나 더



민주노총의 오른팔 담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앞장서 싸워보자 4월 26일 서울 양재동 상경 투쟁

지속됐다.

지금도 이 투쟁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임단협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미뤘지만, 특근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따라서 올해 임단투가 중요하다. 이제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를 위한 투쟁으로 가야 한다. 기본급 대폭 인상, 평일 8시간 근무, 특근 폐지 등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새벽에 퇴근하는 것도, 주말에 고된 노동하는 것도 없앨 수 있다.

이를 쟁취하려면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면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같은 요구들도 함께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임단투는 ‘무쟁의 3년’을 깨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많았다. 지부 지도부는 부분파업으로 힘을 제한했고,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잘 건설하지 못했다. 올해는 그래서 안 된다.

올해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특근 거부 투쟁, CJ대한통운 노동자 투쟁의 승리, 울산건설기계 투쟁의 전진, 현대차 부품업체 엠에스오토텍 노동자 투쟁의 승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민주노총의 오른팔이라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해서 올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가이드 라인을 대폭 올려놔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전진을 이뤄서, 나머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자

현대차 사측이 법을 어기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 먹어 온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아직도 사측은 ‘배째라’다.

헌법 소원을 이용해서 또 시간을 끌면서 ‘신규채용과 처우개선, 업체 해고자 재입사 추진’을 들먹이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불법파견은 외면한 채, 정규직 공정에 촉탁 계약직을 투입해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해고된 현대차 촉탁 계약직 청년 노동자의 자살,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노동자의 분신 등은 모두 이 불법무도한 현대차 사측이 만들어낸 죽음과 비극이다. 법을 지키라는 가장 상식적인 요구를 하철탑에 올라가서 수백 일을 보내도 들은 척도 없는 게 현대차 사측의 ‘법’이다.

정규직 임단협을 앞두고 사측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무죄’ 사회의 두려리가 아니다.

비정규직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설움과 차별과 불법을 끝내야 한다.

지부 지도부는 더 이상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라는 압력을 넣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쟁취해서 8백만 비정규직의 희망을 세워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앞장섰던 동지들을 방어하자

현대차 사측은 특근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거부하고 본관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투쟁한 ‘죄’로 1공장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B55를 적용하고, 엄길정 대표와 박성락 대의원을 고소·고발하고 임금을 가압류했다.

특근 거부 투쟁에 앞장섰던 동지들에게 보복과 탄압을 해서, 임단투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다. 아울러 사측은 다른 사안으로도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 1공장 장윤덕, 3공장 허성관 동지의 급여가 가압류됐고, 5공장에서는 두 명이 해고됐다.

이런 공격에 적극 맞서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정당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것을 결코 두고 봐서는 안 된다.



국정원 선거 개입 범죄로 박근혜가 위기에 처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국정원 대선 개입 범죄의 몸통은 박근혜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국정원은 온갖 악성 댓글을 달면서 박근혜의 당선을 도왔다.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지지·비방 댓글이 없다”며 진실을 덮어버렸다. 검찰은 원세훈마저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제 의혹과 분노의 화살은 원세훈·김용판 뒤에 있는 몸통을 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가 국정원, 경찰과 수시로 협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근혜’가 몸통이었던 것이다.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이 들불

처럼 번졌고, 서울과 전국에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와 국정원·경찰 개혁, 박근혜 사과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온통 범죄공범들이 가득한 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문제가 바로 잡힐 리 없다.

이런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은 불구속되고, 양재동 본사에서 농성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NLL 발언’을 공개하며 역겨운 물타기와 우파 결집 시도에

나서고 있다. ‘바다 위예다가 선을 긋고, 넘어오면 전쟁할 줄 알라는 식’이 NLL에 대한 우파의 태도다.

‘이명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 이 범죄의 관련자들은 모조리 사퇴하거나 구속·처벌받아야 하고 부패 우파의 흥기인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임기 초부터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투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점에서 현대차지부가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 더 적극 이 투쟁에 함께 하자.

현대차 부품업체 엠에스오토텍 파업의 승리

현대차에 차체를 공급하는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여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6월 20일 파업 이틀 만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 들였다. 민주노조를 인정했고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보장도 약속했다.

엠에스오토텍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쥐어짠다. 10년 동안 공장이 한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난 사이 정규직 노동자 수는 그대로였다. 회사는 비정규직만 늘렸고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를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회사는 인원감축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했다. 노동자들은 훌륭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해 함께 파업했다. 파업 이틀 동안 차체 공급에 차질이 생긴

현대차 울산공장 차체 라인까지 대부분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이틀간 확대간부 파업을 벌이고 사측의 공장 봉쇄를 뚫는데 앞장서는 연대의 모범을 보였다. 고무적이게도 일부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연대를 모색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투쟁이 ‘악독한’ 사측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노동자 투쟁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을 구입해 보십시오.

4공장 구 정문 앞 동방책서림이나 <레프트21> 정기 가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격주 월요일 :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2:30~3:30)
- 격주 목요일 :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구입 문의: 02-777-2792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left21.com>